

대만 해외시장동향 [2026년 5월]

'26. 5. 28.(목) /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대만] 전쟁 불구 대만 해외여행시장 호황, 여름성수기 한국이 최대 수혜국 될까?

[주요내용 목차]

1. 대만 관광시장 동향

1.1 대만 아웃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6.1~4월 월별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수
- '26.1~4월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대만 관광객수
- '26.1~4월 대만 아웃바운드 동향

1.2 대만 인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6.1~4월 방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
- '26.1~4월 주요국가 방대만 관광객수
- '26.1~4월 대만 인바운드 동향

1.3 대만 기타 관광시장 동향

[대만 인바운드 시장] △(유치동향) 대만 지방도시, 한국인관광객 유치에 박차, △(양안관광) 중국주도 본격적인 양안관광 활성화 움직임, △(관광서) 동남아시아에 주력, 캐나다에서 한국-대만 공동 마케팅 추진

[대만 아웃바운드 시장(일반동향 및 경쟁국 동향)] △(일반동향) 1분기 해외여행객 19.42% 증가, 두 개 이상 목적지 연계 여행, △(경쟁국_일본) 엔화약세, 항공노선 확대, 고품질 서비스와 콘텐츠가 일본수요 견인, △(경쟁국_중국) 항공노선 재개로 중국 여행상품 시장 진입, 정부 대응, △(경쟁국_태국) 태국, 60일 무비자 폐지, 기존 30일 무비자 정책으로 회귀, △(상품동향) 3분기 여행상품가격, 장거리 노선 8~10% 상승, 한국-일본 보험, △(여행박람회) TTE 상품 판매 큰 폭 증가, 사전 박람회도 호황, △(항공동향) 대만 국적사 연이은 최고 매출 기록, 노선 확대 지속

[대만 관광산업(국내관광포함)] △(국내여행) 전례없는 경제호황으로 침체됐던 국내여행도 점진 회복세, △(정책) 공항 서비스이용료 10년 만에 인상

2. 방한관광 현황 및 전망

2.1 방한 대만관광객수 추이 및 특징

- '26.1~4월 방한 대만관광객수/ - 입국(공항) 루트별 대만관광객수 및 비중

2.2 방한 항공동향

- '26.1~4월 대만-한국 노선 운항편수 및 '25년 대비 증가율
- '26. 5월 현재 주요 노선 운항편수 및 주요 분석

2.3 향후 전망: 전쟁 불구 대만 해외여행시장 호황, 여름성수기 한국이 최대 수혜국 될까?

3. 타이베이지사 '26. 5월 현재 추진 주요사업 및 동향

1. 대만 관광시장 동향

1.1 대만 아웃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026.1~4월 월별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24년	a/b 증가율
1월	1,765,274	1,613,482	1,281,751	9.4%
2월	1,828,010	1,415,766	1,389,474	29.1%
3월	1,771,921	1,463,304	1,321,971	21.1%
4월	1,755,897	1,475,009	1,347,523	19.0%
1~4월	7,121,102	5,967,561	5,340,719	19.3%
5월		1,525,029	1,360,781	
6월		1,648,672	1,566,852	
7월		1,733,458	1,572,801	
8월		1,735,942	1,547,087	
9월		1,498,878	1,364,271	
10월		1,735,534	1,409,979	
11월		1,535,165	1,360,810	
12월		1,564,197	1,326,383	
계		18,944,436	16,849,683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5.28 현재 '26.4월 데이터까지 발표)

○ 2026.1~4월 월별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대만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태국	홍콩
1월 (비중)	687,698 (39.0%)	284,532 (16.1%)	163,616 (9.3%)	97,950 (5.5%)	102,407 (5.8%)	140,151 (7.9%)
2월 (비중)	685,066 (37.5%)	249,539 (13.7%)	180,547 (9.9%)	98,964 (5.4%)	113,774 (6.2%)	165,358 (9.0%)
3월 (비중)	640,025 (36.1%)	334,387 (18.9%)	191,864 (10.8%)	101,612 (5.7%)	86,256 (4.9%)	143,377 (8.1%)
4월 (비중)	641,304 (36.5%)	320,587 (18.2%)	188,206 (10.7%)	107,069 (6.1%)	81,037 (4.6%)	145,462 (8.3%)
(a) '26.1-4월 (비중)	2,654,093 (37.3%)	1,189,045 (16.7%)	724,233 (10.2%)	405,595 (5.7%)	383,474 (5.4%)	594,348 (8.3%)
(b)'25 비중*	35.5%	17.1%	9.7%	6.4%	5.4%	8.6%
(c)'24 비중*	35.6%	16.4%	8.5%	7.5%	6.7%	7.1%
(d)'23 비중*	35.8%	14.9%	8.1%	7.2%	6.6%	6.3%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각 년도 대만 아웃바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26.1~4월 대만 아웃바운드 동향

- 대만의 4월 아웃바운드 관광객수는 1,755,897명으로 전년 동기 (1,475,009명) 대비 19.0% 성장하였음. 1~4월 누계로는 7,121,102명으

로 전년 동기(5,967,561명) 대비 19.3% 증가하여 금년도 대만의 아웃바운드관광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 아웃바운드 목적지별로 살펴보면 일본, 중국, 한국, 홍콩, 베트남 및 태국 순으로 전년도와 동일함. 다만 일본은 전년 전체 비중 대비 약 2%p 증가하였는데, 엔저 현상 지속, 경쟁력 있는 콘텐츠 등으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 있음. 한국은 전체 비중 10% 이상을 유지하며 대만 내 대중적이고 매력적인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

1.2 대만 인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026.1~4월 월별 방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24년	a/b 증가율
1월	723,375	651,078	589,961	11.1%
2월	625,608	699,158	648,348	-10.5%
3월	883,061	778,576	811,608	13.4%
4월	758,613	751,149	610,146	1.0%
1~4월	2,990,657	2,879,961	2,660,063	3.84%
5월		710,933	581,748	
6월		606,346	571,510	
7월		586,226	539,454	
8월		673,102	616,922	
9월		601,339	575,455	
10월		757,860	661,115	
11월		812,236	747,800	
12월		946,544	903,619	
계		8,574,547	7,857,686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5.28 현재 '26.4월 데이터까지 발표)

○ 2026.1~4월 월별 주요국가 방대만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홍콩/마카오	일본	한국	미국	베트남
1월 (비중)	81,266 (11.2%)	120,310 (16.6%)	130,755 (18.1%)	56,056 (7.7%)	31,044 (4.3%)
2월 (비중)	90,056 (9.3%)	70,337 (11.2%)	96,313 (15.4%)	50,923 (8.1%)	41,169 (6.6%)
3월 (비중)	98,865 (11.2%)	166,393 (18.8%)	94,334 (10.7%)	79,914 (9.0%)	57,327 (6.5%)
4월 (비중)	116,758 (15.4%)	109,235 (14.4%)	82,621 (10.9%)	72,374 (9.5%)	36,859 (4.9%)
(a)'26.1~4월 (비중)	386,945 (12.9%)	466,275 (15.6%)	404,023 (13.5%)	259,267 (8.7%)	166,399 (5.6%)

(a)25 비중*	15.3%	17.3%	11.9%	8.3%	5.0%
(a)24 비중*	16.7%	16.8%	12.8%	8.3%	4.7%
(a)23 비중*	18.5%	14.3%	11.5%	8.2%	5.9%
구 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중국
1월 (비중)	28,113 (3.9%)	33,064 (4.6%)	33,365 (4.6%)	68,517 (9.5%)	46,690 (6.5%)
2월 (비중)	27,312 (4.4%)	21,584 (3.5%)	26,968 (4.3%)	61,602 (9.8%)	58,062 (9.3%)
3월 (비중)	42,966 (4.9%)	47,795 (5.4%)	46,138 (5.2%)	79,900 (9.0%)	46,864 (5.3%)
4월 (비중)	30,013 (4.0%)	38,974 (5.1%)	43,936 (5.8%)	72,629 (9.6%)	49,794 (6.6%)
(a)26.1~4월 (비중)	128,404 (4.3%)	141,417 (4.7%)	150,407 (5.0%)	282,648 (9.5%)	201,410 (6.7%)
(a)25 비중*	4.5%	5.2%	4.8%	7.3%	7.4%
(a)24 비중*	5.5%	5.7%	5.1%	5.9%	5.6%
(a)23 비중*	6.7%	7.2%	6.1%	5.9%	3.5%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각 년도 대만 인바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26.1~4월 대만 인바운드 동향

- 대만의 4월 인바운드 관광객수는 758,613명으로 전년 동기(751,149명) 대비 1.0%로 증가하였으며, 1~4월 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는 2,990,657명으로 전년 동기(2,879,961명) 대비 3.84%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웃바운드 증가세에 비해 완만한 흐름을 보임.
- 4월에는 홍콩/마카오에서 대만을 방문한 비중이 크게 증가(전월 대비 4.2%p ↑)하였는데, 당월 기준 한국, 일본을 넘어서 1위를 기록함. 이는 부활절 연휴 등 단기연휴 계기 방대만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보임
- 1~4월 누적 통계를 살펴보면 일본(15.6%), 한국(13.5%), 홍콩/마카오(12.9%), 필리핀(9.5%), 미국(8.7%), 중국(6.7%) 순으로 이어지며, 원거리 시장인 미국의 방문 비중이 3~4월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1.3 대만 기타 관광시장 동향

대만 인바운드시장

○ (유치동향) 대만 지방도시, 한국인관광객 유치에 박차

- (가오슝) 1분기 가오슝국제공항 입국 한국인관광객은 11만5천명으로 팬데믹 이전 최고기록을 경신, 처음으로 일본을 초월했으며, 이들은 가오슝에서 약 NT\$24억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짐. 가오슝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관광객은 11월~3월 기간 가오슝 방문을 가장 선호, 78%가 전반적으로 가오슝 여행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편한 부분은 △무더운 날씨 △한국어 가이드와 메뉴 부족 △버스 이용 불편 △야시장 특색 부족으로 조사됨

- (타이난) 타이난시, “2026 관광 운전기사 외국어 및 관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 포함,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과정을 개설하여 버스 기사들에게 기본 언어 교육을 제공
- (타이중) 타이중시, 주요 인바운드 시장인 한국 공략을 위해 3.30일 타이중-부산을 신규 취항한 진에어와 협력, 3박4일 간 아리산, 일월담 등 일정으로 한국 여행업자 팸투어 실시

○ **(양안관광) 중국주도 본격적인 양안관광 활성화 움직임**

- (노동절 연휴 동향) 중국 노동절 연휴기간(5.1~5) 기간 진먼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은 6,579명, 99% 이상이 개별관광객. 연휴기간 진먼현 객실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40~60%를 기록, 진먼현 정부는 페리 운항횟수 부족으로 숙박 예약을 하고도 페리 좌석확보가 안돼 방문을 취소한 사례가 많았으며, 이에 양안 간 페리 증편이 시급하다고 중앙정부에 요구
- (상하이 개방) 지난 4.29일 중국의 상하이시민 진먼과 마주에 대한 개인/단체 관광비자 신청 허용 발표후 첫 단체(13명)가 사전답사의 형태로 5.11일 진먼 도착
- (직항편 재개) 지난 4월 중국정부가 발표한 <대만에 대한 10대 우대 정책>(4월 동향보고서 참조) 중에 관광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양안 직항 운항 정상화’ 항목과 관련, 중국 국적 항공사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중국동방항공은 청두-타이중 정기편을 재운항하며 (7.1~), 춘추항공은 닝보-가오슝 노선을 주 2회 신규 취항(7.4~), 산둥항공은 칭다오-타이중 노선을 주 1회 운항(7.23~10.24) 계획임. 이 외에도 많은 중국 지역과 대만 가오슝/타이중 노선이 공식 승인을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짐

○ **(관광서) 동남아시아에 주력, 캐나다에서 한국·대만 공동 마케팅 추진**

- (인도네시아) 관광서, 대만업계 16개 기관 37명으로 구성된 ‘대만 관광대표단’과 함께 자카르타(5.1~3) 및 메단(5.4~6)에서 ‘대만관광

홍보행사' 개최. 10월 인도네시아 방학 연계 대만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소비자 행사로, 고전 서커스 공연, 티백 체험, 숲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이를 계기로 대만이 인도네시아 아웃바운드 목적지 1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관광서는 전함

- (말레이시아) 관광서는 하반기 연휴 시즌 겨냥, 29개 기관 64명으로 구성된 대만대표단을 5.13~20 기간 말레이시아 페낭과 쿠알라룸푸르에 파견, B2B와 B2C 행사 개최. 특히 무슬림 친화 관광환경을 대대적으로 홍보, B2B 행사에서 6천건의 비즈니스 미팅을 성사시킴
- (캐나다) 한국관광공사와 대만관광서는 공동으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국-대만 관광의 밤” 행사 개최, 양국 연계 관광 홍보. 대만관광서 샌프란시스코지사과 한국관광공사 토론토지사가 협업개최한 동 행사에는 100여명의 현지 업계 관계자가 참가
- (유럽) 관광서, 2026 IMEX(프랑크푸르트) 박람회 참가, 13개 경제부 산하 컨벤션 기구 중심, 여행사, PCO, DMC 등 총 13개 기업이 참가하여 대만 MICE관광을 홍보

대만 아웃바운드시장(일반동향 및 경쟁국 동향)

○ (일반동향) 1분기 해외여행객 19.42% 증가, 두 개 이상 목적지 연계 여행

- 1분기 대만 해외여행객 수는 536만52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2% 증가, 역대 최고치 기록. 목적지로는 일본이 압도적 1위, 전년 동기 대비 40만명 증가한 201만명, 중국 87만명, 한국 54만명, 홍콩 45만명 순이며, 기타 시장도 베트남을 제외 대부분 성장세 기록. 특이할 만한 것은, OTA 예약 패턴 분석 결과, 대만인들은 팬데믹 이전과 다르게 해외여행 시 단일 목적지가 아닌 두곳 이상의 목적지를 연계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 도쿄-교토-오사카, 서울-부산, 방콕-치앙마이 등 두곳 이상의 목적지를 포함하는 여정을 선택

○ (경쟁국_일본) 엔화약세, 항공노선 확대, 고품질 서비스와 콘텐츠가 일본수요 견인

- (일반동향) 대만인 일본여행자수는 2004년 100만명 돌파에 이어 2024년 600만명 돌파로, 20년 간 6배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신기록을 달성한 바 있음. 일본 방문 대만인관광객의 80% 이상이 재방문객이며, 10회 이상 여행목적 방문의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짐.

특히 최근 일본여행 증가는 ①엔화 약세 ②LCC 노선 확대 ③일본의 높은 서비스 품질과 여행 콘텐츠 경험 선호에 기인한 것으로 일본과 대만 매체는 보도. 특히, 대만인의 일본여행 특징은, 과거 화장품, 가전 제품 소비여행 중심에서 지금은 스키, 온천, 예술축제, 로컬콘텐츠 등 체험형 콘텐츠 소비로 전환된 점과 일본 27개 지역 공항을 연결하는 항공노선을 이용한 지역 관광 증가임

- (구마모토 관광객 1위, 대만) 지난해 구마모토 숙박 외국인 관광객이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 115만 4천명 기록. 국가별로는 대만인이 약 32.4만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며 1위, 다음으로 중국(21.8만), 한국(18.5만), 홍콩(9.4만) 순이었음. 대만인의 구마모토 여행 증가는 TSMC 공장 건립으로 인한 양국 간 비즈니스/사회/관광 교류 증대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분석
- (후쿠오카, 쇼핑관광객 급증) 짧은 비행시간, 도심 접근성, 단기 여행 일정 가능, 환율유리 등의 긍정 요소로 대만인들의 후쿠오카 여행 급증. Funliday(여행일정 특화 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여행 계획 건수가 크게 증가, 특히 후쿠오카가 전년 대비 466% 증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임
- (미야자키현, 고액 인센티브 제공) 6.1일부터 미야자키현은 숙박 보조금 프로그램 시행, 지정숙소 예약시 요금 최대 30% 할인(1인 최대 3,000엔), 1인 1박당 최대 3,000엔 쿠폰 발급, 관광객은 숙박업소는 물론 지역 내 식당과 상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현 내 3박 여행일정의 경우, 숙박 할인 9,000엔과 할인쿠폰 9,000엔을 받는 큰 혜택임
- (이시가키섬 페리 운항) 대만 지룽과 일본 이시가키 섬을 잇는 새로운 해상항로 '야이마마루'가 5.28일 첫 운항 개시. 가장 저렴한 도미토리 룸의 1인 가격은 NT\$2,000이며, 시범으로 6월 말까지 주 1회 운항, 7월부터 주 2회 정식 운항. 특히 목요일 밤 출발 페리 탑승시 금요일 오전 이시가키 도착 주말여행후 다시 대만으로 돌아오는 일정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해 젊은층 대상 인기가 많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
- (출국세 인상) 2019년부터 1인당 1,000엔씩 부과돼 온 일본 출국세가 7.1일부터 3,000엔으로 인상. 출국세는 항공권이나 크루즈 티켓에 부과되며, 유명관광지의 '오버 투어리즘' 해소 목적으로 사용 예정

- (경쟁국_중국) 항공노선 재개로 중국 여행상품 시장 진입, 정부 대응
 - 타이중-청두 노선 재개 소식에 타이중 일부 여행사들이 사천성 일대 여행상품 홍보와 모객 개시. 대만 매체는 중국 단체여행은 금지돼 있는 상황으로 동 상품들은 모두 불법이라 보도
 - 관광서는 상기 중국여행상품 관련, 현재 대만은 국민 안전상의 이유로 중국 단체관광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관광개발법 제53조 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NT\$15만~50만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자 등록증 또는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5.22~25 기간 개최된 타이베이 국제여행박람회에서도 중국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를 공식 제지한 바 있음. 관광서는, 양안관광의 재개는 지난해 2월 대만 정부가 제안한 '정부간 정식 협의와 협상'에 의해서만 정상화될 수 있다고 첨언
 - 한편, 일부 네티즌은 SNS에서 어느 지역을 가도 대동소이한 여행콘텐츠, 이전 대비 떨어진 서비스 품질, 특별할 것 없는 음식으로 구성된 일본 여행보다 지역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고 가격이 저렴하며 현대적이고 규모가 큰 관광인프라가 인상적인 중국 대륙여행을 선호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관심을 끌기도 함
- (경쟁국_홍콩) 홍콩관광청과 8개 여행사 연합 프로모션, NT\$8,888~
 - 홍콩관광청과 대만 8개 여행사 공동 5.17부터 2주간 온라인박람회 개최. TTE와 연계한 프로모션으로 분석되며, 여름방학 타깃 3박4일 여행 패키지가 비교적 저렴한 NT\$8,888부터 시작
- (경쟁국_태국) 태국, 60일 무비자 폐지, 기존 30일 무비자 정책으로 회귀
 - 태국 외교부, 기존의 93개국 대상 60일 무비자 관광비자 발급 제도를 폐지하고 대만을 포함한 대상 국가들에게 기존의 30일 무비자 제도 실시 공지. 태국 정부는 60일 무비자 제도가 의도치 않게 외국인 불법 비즈니스나 범죄활동에 악용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
- (상품동향) 3분기 여행상품가격, 장거리 노선 8~10% 상승, 일본·한국 포함
 - (일본) 유류할증료 인상, 일본 내 호텔/버스요금 인상, 일본 출국세 인상(7월~)으로 여행비용 1,000~3,000엔 상승 불구, 항공편 증가와 일정 내 호텔과 식사 옵션화(비즈니스호텔, 식사불포함 등)로 전체 패키지 상품가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 전망
 - (한국) 부산 인기로 수요 급증, 특히 타이베이 외 지역 출발 부산 항공편

좌석확보 어려운 상황. 단, 항공편 증편이 이어지고 있고, 안정적인 환율 영향으로 3분기 여행상품 가격은 변동없을 것으로 예상

- (동남아) 주요 동남아 목적지 들은 항공 유류할증료 인상 영향을 받아 대부분 상승, 지난해 동기 대비 패키지 상품가가 5~10% 인상됨. 단체 여행 수요가 많은 태국의 무비자 정책 단축 등의 제도변화가 있었으나 5~7일 간의 여행일정이 대부분이라 영향 없을 것으로 분석
- (구미주) 미주의 경우, 6월말 월드컵 개막 및 장거리 노선 항공권 가격 인상으로 6월부터 상품가격 이미 인상, 8~10% 정도 상승. 유럽의 경우에도 환율변동, 지상비 인상 등으로 5~8% 상품가 상향조정 예상

○ **(여행박람회) TTE 상품 판매 큰 폭 증가, 사전 박람회도 호황**

- (Klook, 한국에 수요집중) TTE 연계 사전 온라인 여행박람회를 개최한 Klook은 '박람회 특가' 관련 검색어가 전년 대비 22% 증가, 프로모션에 대한 기대감과 수요가 지난해보다 높았다고 전함. 대부분의 여행계획은 하반기에 집중돼 있었으며, 수요가 집중된 지역은 일본과 한국이며, 구미주 중장거리 여행이 회복세를 보였으며, 1-day 투어 상품 등이 인기
- (TTE 상품판매량 증가) 타이베이국제여행박람회(TTE, 5.22~25) 기간 콜라여행사의 개별여행 상품 판매량이 작년 대비 50% 증가, 대표 목적지는 일본과 한국. 라이온트래블의 경우 일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순으로 단체 수요가 많았으며, 단거리 여행상품은 여름휴가철 타깃이었고, 장거리 여행상품은 내년상품 사전예약이 많았음

○ **(항공동향) 대만 국적사 연이은 최고 매출 기록, 노선 확대 지속**

- (대만 국적사 4월 역대 최고 매출) 중화항공, 스타릭스, 타이거에어 모두 4월에 역대 최고 매출 기록. 이들 항공사는 일본과 한국의 청명절 연휴 벚꽃시즌 상품이 큰 호황을 이뤘고, 특히 도쿄, 후쿠오카, 서울 노선이 인기가 많아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1~4월 누적 매출액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 할 것으로 전망
- (타이거에어) 중동 분쟁으로 평균 항공권 가격 5% 인상 불구, 올해 1~4월 평균 탑승률 91% 기록, 5월 이후 여름성수기까지 90% 이상 유지 예상. 타이거에어는 상반기 취소 노선이 없으며, 전 노선 흑자를 기록중이고, 해외 중소도시 탑승률은 85%, 인기 노선은 100% 상황으로 고유가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타오위안-이시가키

- 주 4회로 증편(6.2~10.24) △하반기 중 가오슝발 신규 일본노선 2개가 추가 검토중
- (중화항공) △여행수요 증가로 타오위안-부산 주 18회, 타오위안-프라하 주 3회로 증편(5월~) △타오위안-뉴욕은 주 5회로 증편(8.5~)
 - (에바항공) △타오위안-아오모리 주 매일 운항으로 증편(6.1~) △타오위안-다낭 A321(184석)에서 A333(309석) 기종으로 변경(7.1~10.16) △타오위안-부산 주 12회로 증편(7.1~8.26) △국경절 연휴 연계 타오위안-인천 추가 항공편 매일 운항(9.21~10.11)
 - (스타럭스) △타오위안/타이중-부산 신규취항(6.1~) △타이베이-고베 주 7회로 증편(6.1~6.30) △타이중-마카오 주 10회로 증편(7.11~31) △타이중-도쿄 주 7회로 증편(7.11~31) △타이중-구마모토 주 6회로 증편(7.11~31)

대만 관광산업(국내관광포함)

- (국내여행) 전례없는 경제호황으로 침체됐던 국내여행도 점진 회복세
 - 1분기 대만 국내총생산 성장률 13.69% 성장, 4.89% 증가한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 게다가 대만 주식시장의 초호황(1분기 주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7.2% 증가)으로 실질 소득이 증대된 일반 소비자들은 여행지출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분기 국내 기후가 예년에 비해 안정적이었고 연휴도 많은 편이었으며, 유가 급등에 따른 해외 항공권 인상 우려도 있었기에 대만인들의 국내 여행소비가 증가했는데, 설연휴가 있었던 1분기엔 약 125% 증가했고, 노동절 연휴가 있었던 5월은 내국인 증가로 대도시 주요호텔 객실 점유율이 90%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많은 지방정부들이 5월부터 지역 숙박객 대상 인센티브 제공 사업을 실시, 국내여행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
- (정책) 공항 서비스이용료 10년 만에 인상
 - 대만 출국 항공권에는 NT\$500의 공항이용료가 포함돼 있음. 10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공항이용료가 두단계에 걸쳐 9월부터 NT\$750, 2028년 9월부터 NT\$1,000으로 인상 예정
 - 공항이용료는 관광개발기금으로 관리되며, 50%는 관광서 기금으로, 50%는 타오위안공항공사로 귀속됨

2. 방한관광 현황 및 전망

2.1 방한 대만관광객수 추이 및 특징

○ 2026.1~4월 월별 방한 대만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a/b 증가율	'26년 전체 방한객수(c)	a/c 비중
1월	166,779	135,434	23.1%	1,265,658	13.2%
2월	183,753	120,015	53.1%	1,431,472	12.8%
3월	192,138	140,017	37.2%	2,045,992	9.4%
4월	192,854	151,613	27.2%	2,027,860	10.5%
1~4월	735,524	547,079	34.4%	6,770,982	9.2%
5월		150,272			
6월		164,885			
7월		199,280			
8월		191,565			
9월		154,992			
10월		161,049			
11월		158,374			
12월		163,918			
계		1,891,414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 2026.1~4월 한국-대만 방문객수

구 분	대만→한국	한국→대만	계
1월	166,779	130,755	297,534
2월	183,753	96,313	280,066
3월	192,138	94,334	286,472
4월	192,854	82,621	275,475
1~4월	735,524	404,023	1,139,547

○ 입국(공항) 루트별 대만관광객수 및 비중

(단위 : 명)

구 분	전체	인천	김해	김포	제주	대구	청주
'26.1월	166,779	78,932 (47.3%)	44,852 (26.9%)	12,046 (7.2%)	23,820 (14.3%)	2,074 (1.2%)	4,812 (2.9%)
'26.2월	183,753	82,277 (44.8%)	52,909 (28.8%)	13,299 (7.2%)	24,158 (13.1%)	3,796 (2.1%)	6,683 (3.6%)
'26.3월	192,138	76,238 (39.7%)	62,197 (32.4%)	13,299 (6.9%)	26,152 (13.6%)	3,141 (1.6%)	4,445 (2.3%)

'26.4월	192,854	78,191 (40.5%)	67,222 (34.9%)	12,855 (6.7%)	25,096 (13.0%)	3,428 (1.8%)	4,042 (2.1%)
'26.1~4월 누계	735,524	315,638 (42.9%)	227,180 (30.9%)	51,499 (7.0%)	99,226 (13.5%)	12,439 (1.7%)	19,982 (2.7%)
'25년 전체	1,891,414	884,121 (46.7%)	509,136 (26.9%)	144,491 (7.6%)	211,121 (11.2%)	65,143 (3.4%)	41,385 (2.2%)
'24년 전체*	1,473,908	722,453 (49.0%)	361,863 (24.6%)	123,098 (8.4%)	133,256 (9.0%)	73,467 (5.0%)	27,991 (1.9%)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참고] ()은 전체 입국루트에서 차지하는 비중

○ 주요 분석

- 4월 방한 대만관광객수는 192,854명으로 전년 동기(151,613명) 대비 27.2% 증가하였으며 1~4월 누계로도 735,524명으로 전년 동기(547,079명) 대비 34.4% 증가하여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음. 다만 이는 1분기 평균 증가(약 37.2%) 대비 다소 둔화된 모습임
- 전체 방한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월에는 10.5%였으며 1~4월 누계로는 9.2%를 차지하였음. 대만 관광객 증가율은 4월 들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 방한객 증가세 또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 운임 부담 확대 등의 영향으로 완만해지면서 전체 방한객 대비 점유율은 전월(3월, 9.4%)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과 대만 상호 방문객수는 1~4월 1,139,547명을 기록하며 양국 간 관광교류 확대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올해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2,907,934명)을 상회하는 수준의 교류가 예상되며, 연간 상호 방문객 규모 또한 새로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4월 기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대만관광객은 78,191명으로 전체 대만관광객의 40.5%를 차지하였으며, 여전히 최대 입국 관문 역할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인천공항 비중은 과거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김해공항 비중은 34.9%까지 확대되며 인천공항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함께 1~4월 누계 기준 제주공항 13.5%, 대구 1.7%, 청주 2.7%를 기록하는 등 대만 관광객의 방한 동선이 수도권 중심에서 부산·영남권 및 제주 등 지방 관광으로 다변화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1~4월 기준 각 공항 입국객수 가운데 대만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통해 지방공항 국제선 수요에 있어 대만 관광객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음.

구 분	전체	인천	김해	김포	제주	대구	청주
전체	6,770,982	4,403,874	619,660	445,666	507,287	36,111	40,945
대만	735,524	315,638	227,180	51,499	99,226	12,439	19,982
대만 비중	10.9%	7.6%	36.7%	12.0%	19.6%	34.4%	48.8%

2.2 방한 항공동향

○ '26.1~4월 대만-한국 노선 운항편수 및 '25년 대비 증가율 (단위 : 편)

구 분	'26년(a)	'25년(b)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전월대비 증가율
1월	2,837	2,486	14.1%	3.4%
2월	2,654	2,215	19.8%	-6.5%
3월	2,902	2,381	21.9%	9.3%
4월	2,871	2,274	26.2%	-1.1%
1~4월	11,264	9,356	20.4%	
5월		2,377		
6월		2,227		
7월		2,440		
8월		2,460		
9월		2,285		
10월		2,622		
11월		2,628		
12월		2,745		
계		29,140		

[출처]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기준] 정기+부정기, 출발편+도착편

○ '26. 5월 현재 주요 노선 운항편수 (단위 : 편)

구 분	'26.4월	'26.3월	'26.2월	'26.1월
타이베이-인천	750 (-0.01%)	758 (3.4%)	733 (-2.8%)	754 (4.9%)
타이베이-김해	752 (-0.01%)	757 (19.6%)	633 (-8.3%)	690 (6.6%)
타이베이-대구	64 (0.03%)	62 (3.3%)	60 (-3.2%)	62 (-%)
타이베이-제주	244 (-0.02%)	248 (8.8%)	228 (-8.1%)	248 (-%)
타이베이-청주	119 (-0.3%)	177 (-9.1%)	183 (-1.1%)	185 (5.7%)
타이베이(송산)-김포	120 (-0.03%)	124 (10.7%)	112 (-9.7%)	124 (-%)
가오슝-인천	180 (-0.03%)	186 (10.7%)	168 (-9.7%)	186 (-2.1%)
가오슝-김해	178 (36.9%)	130 (16.1%)	112 (-9.7%)	124 (-%)
가오슝-김포	94 (-0.1%)	104 (8.3%)	96 (-9.4%)	106 (-%)
가오슝-제주	67 (-0.06%)	71 (10.9%)	64 (-11.1%)	72 (4.3%)
타이중-인천	240 (-0.03%)	248 (10.7%)	224 (-9.7%)	248 (-%)
타이중-제주	17 (-)	17 (6.3%)	16 (-11.1%)	18 (5.9%)
타이중-김해	42 (9.5%)	4 (-)		
화롄-인천	16 (-)	16 (-)	16 (-11.1%)	18 (12.5%)

[출처]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기준] 정기+부정기, 출발편+도착편
 [참고] ()는 전월 대비 증가율

○ 주요 분석

- 2026년 4월 한-대만 운항편수는 2,871편으로 전년 동기(2,274편) 대비 26.2% 증가하였으며 전월(2,871편)과 비교해서는 소폭 감소(-1.1%)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전년 대비 증가세는 지속 유지되고 있으며, 월별 운항편수는 계절적 수요 변화 및 항공사 공급 조정 등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임
- 1~4월 누계 운항편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방한 대만 관광객 수 증가율(34.4%)이 이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항공 공급 확대와 함께 방한 수요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
- 노선별 운항편수는 전월 대비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김해공항 노선만이 증가하였음. 특히 가오슝-김해(36.9% 증가), 타이중-김해(9.5% 증가) 등 대만 지방공항 간 노선이라는 점도 주목할만 함

2.3 향후 전망

○ **전쟁 불구 대만 해외여행시장 호황, 여름성수기 한국이 최대 수혜국 될까?**

- (통계적 분석) 대만 통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4월 대만 전체 아웃바운드 관광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하였고, 주요 목적지 국가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이 38.0% 증가, 중국, 일본, 홍콩이 각각 24.0%, 23.7%, 16.2% 증가율을 보여, 한국 증가폭이 경쟁국 대비 매우 높아, 대만 여행시장에서 한국 선호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됨. 한편, 1~4월 기준 전체 아웃바운드 인원 중 일본과 한국 방문 비중은 각각 37.3%와 10.2%로, 지난해 동기의 35.9%와 8.8%를 넘어서 양국으로의 관광객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대만 아웃바운드 통계(26. 1~4월 누적)>

	총계	일본	중국	한국	홍콩
인원(명)	7,121,102	2,654,093	1,189,045	724,233	594,348
증가율(%)	19.3	23.7%	24.0%	38.0%	16.2%
비중(%)	-	37.3%	16.7%	10.2%	8.3%

(대만관광서)

- (시장환경적 분석) 대만의 1분기 국가 경제지수는 GDP 성장률 13.69%, 수출증가 51.1%, 민간소비 4.89% 증가, 사상최고 가권지수 기록 등 매우 좋은 상황. 특히, 그간의 '수출과 국가경제는 좋지만 내수와 국민생활은 좋지 않다'는 평가와 다르게 민간소비가 5%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 소비쿠폰/현금지원, 주식상승에 따른 자산증대, AI업계의 고연봉 확대 등으로 대만인들은 여행과 레저, 외식 등에 더욱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하고 있으며, 우수한 여행콘텐츠와 인프라를 보유, 충분한 항공좌석을 공급,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한국이 그 최대 수혜 여행목적지 중 하나인 것으로 대만 업계와 매체는 분석. 여기에, 유가가 안정화되면서 당초 우려됐던 항공권 가격 상승이 둔화되면서 하반기 한국여행 수요는 현재의 증가세를 유지하거나 되려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다만, 중앙과 지방정부의 국내여행 장려 정책, 중국 대륙의 적극적인 양안간 직항노선 재개 등이 아웃바운드 증가율 1위인 방한관광 수요에 일정 정도는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주시가 필요함
 - (여행업계 방한상품 현황 분석) 한국 항공노선은 지난 4~5월 높은 인상폭을 보인 구미주 및 동남아 노선 대비 그 인상률이 낮아 상대적 경쟁력을 갖추었고, 그 결과 상품 예약은 호조였음. 또한, 공사와 한국 지사체(RTO)가 대만업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2026 중부관광의 해> 연간 마케팅 사업을 통해 대만 시장에는 새로운 한국(중부지역)상품들이 출시되어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함. 5월말 기준 한국 노선 항공가격은 더욱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TTE(타이베이국제여행 박람회) 연계 여름 성수기 타깃 주요 여행사들과 항공사들은 한국과 일본을 주력상품으로 대규모 프로모션을 전개 중인 한편, 여행업품질보장협회 등이 공지한 3분기 상품 참고가격 역시 한국의 경우 변동이 없어 한국상품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종합전망) 경제호황 분위기에서 맞게되는 6~8월 여름 해외여행 성수기는 또다시 역대 최고 아웃바운드 여행객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며, 1~4월 통계 및 5월 상품 판매 현황으로부터 예상컨대, 큰 외부 변수가 없는 한 한국은 그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함

3. 타이베이지사 '26. 5월 현재 추진 주요사업 및 동향

- 3.1 2026년 상반기 여행업계 모객광고지원(1~6월)
- 3.2 2026년 첫 번째 Taiwan Only 사업(세종낙화축제/5.16) 모객지원
- 3.3 K-관광 로드쇼 in Taipei 개최(5.15~17)
- 3.4 대만 개별관광객 활성화 캠페인 K-local 100 Highlights 1차 공개
- 3.5 대만 세신대학교 관광학과 한국여행발표회 참석(5.6)
- 3.6 대만국제교육교류연맹, 방대만한국교장단팸투어 간담회 참석(5.8)
- 3.7 강원관광설명회 지원(5.22)
- 3.8 대만 고교 방문 방한여행 설명회(5.27)
- 3.9 코리아플라자 활용 K-관광 로드쇼 참여 콘텐츠(관광기념품) 전시
- 3.10 업무협약(해피톡(5.18), 롯데월드(5.21), 한국보건산업진흥원(5.22))

※ 언론매체(연합보, 나우뉴스, 튀바오, 자유시보, 중국시보, 튀치, 공상시보, TVBS, 중앙통신사(CNA) 등), 대만 관광서, 대만관광협회, 대만여행업품질보장협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및 업계동향 등 종합. 끝.